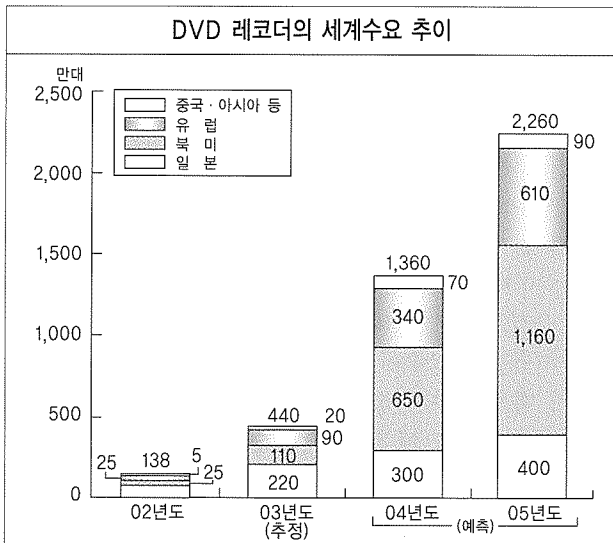


DVD레코더 시장동향

가정용 비디오투코더의 주류가 VHS테이프에서 DVD레코더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금세기 들어 등장한 DVD레코더는 200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그 사용간편함과 디지털고화질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인기상품이 되었다. 2003년 출하대수는 전년대비 약 3배인 220만대 전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저가격화된 단체타입과 다양한 편집이 가능한 HDD내장형의 신장률이 높다. 2004년은 거치형VTR을 웃도는 300만대 수요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테네올림픽이나 월드컵 예선 등의 큰 행사도 있기 때문에 350만대 전후까지 늘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2004년은 다양한 동화·정지화상 소스에 대응한 가정에서의 본격적인 '영상서버'로써 채택되는 해가 될 것이다.



(자료 : 마시타전기)

DVD비디오의 보급을 계기로 영상소프트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한 발 앞선 중국·아시아에 이어 2003년은 세계 주요 시장에서 서버(DVD플레이어)의 시장이 VTR을 역전하였다. 세계수요도 2002년은 모두 4천만대 가량이었지만 2003년은 VTR이 두자리수 감소된

반면, DVD는 계속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해 드디어 VTR을 역전하였다.

일본국내시장에서도 2003년의 출하대수는 VTR이 전년대비 4할 가량 감소(300만대 남짓)된 반면, DVD는 동 1.5배의 약 500만대까지 확대된 것 같다. 2002년 VTR쪽이 135만대 많았지만 2003년은 역전하여 한꺼번에 차이를 벌려놓은 상태이다.

한편, 영화 등의 패키지소프트는 이미 2001년에 DVD비디오소프트가 VHS카세트를 수량면에서 역전하였다. 음악소프트에 이어 영상소프트도 '디지털이 당연하다'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녹화미디어의 디지털화는 당연한 흐름이다. DVD플레이어가 등장했을 때도 이용자로부터 '왜 녹화할 수 없나'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지금은 패키지소프트나 녹화미디어도 DVD 등의 환경은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디지털비디오투코더는 녹화한 콘텐츠를 다양한 화질모드로 수록할 수가 있다. 물론, 고화질이든 미디어에 수록가능한 시간이 짧아지고 화질을 떨어뜨리면 장시간 녹화가 가능해진다.

또, DVD레코더나 HDD레코더에는 디스크미디어만의 기능으로써 자동적으로 빈 공간을 검색하여 녹화를 시작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아직 보지 못했던 녹화프로그램을 잘못해서 소거해버릴 우려도 없다. 게다가 이들 디스크레코더는 수록한 프로그램을 일람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귀찮게 첫머리 찾는 일없이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재생할 수가 있다.

또한, DVD레코더는 당초, 녹화한 디스크를 일반 DVD플레이어에 재생할 수 없는 점이 보급의 저해요인이 되었지만 재기록용 포맷(DVD-RAM/-RW/+RW)과는 별도로 일반 DVD플레이어에서도 재생할 수 있는 DVD-R 디스크에도 대응하게 됨으로써 이 어려운 점을 해소했다. DVC 등으로 촬영한 디지털고화질영상을 DVD-R에

기록하고 DVD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송하는 방법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최근엔 플레이어쪽에서도 RAM/-RW/+RW에 대응한 모델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편리한 사용법과 고화질기록·재생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2년부터 서서히 디지털비디오레코더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업체의 비용절감노력으로 DVD레코더 출하대수는 2001년이 전년대비 4배 남짓의 18만대 전후, 2002년이 동 4.6배의 83만대로 급증했다.

시장확대에 따라 방식간, 그리고 업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현재는 성능경쟁, 가격경쟁에 따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전형적인 보급의 구도가 생겨났다.

앞으로 더욱, DVD레코더 단체기의 저가격화가 추진되면 DVD플레이어와의 가격차가 축소되어 VTR과 똑같이 가정용 영상데크는 녹화기능부착이 당연하다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DVD비디오(플레이어+레코더)의 레코더 비율은 약 2대 1이지만 2004년은 이것이 상관없이 1대 1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본다.

앞으로는 DVD레코더의 저가격화가 진전된 한편, 다기능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대용량기록미디어의 HDD를 내장한 타입이 수요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정지화상도 재생·편집할 수 있는 'PC카드슬롯탑재' 타입의 인기가 높다. 이것은 1대에 TV프로그램, 자기가 촬영한 동화상·정지화상, 가정에서 즐기는 영상의 대부분에 대응한 디지털녹화·재생기이므로 일종의 홈영상서버라 말할 수 있다.

본격적인 홈서버의 개발은 컴퓨터업체가 한발 앞서 있지만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쪽이 용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는 알기 쉬운 면도 있다. AV 업체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의 연장선상에서 홈서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일본시장이 앞서있는 DVD레코더의 보급이 해외에도 확대되고 있다. 2002년까지는 세계수요의 7할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3년은 미국, 유럽에서도 수요가 증가해 일본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이 거의 동등해졌다.

마쓰시타전기는 2004년도는 북미가 6배, 유럽도 3.5배의 수요증가를 예상되므로 세계 수요의 8할 가량을 해외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의 마쓰시타전기, 도시바, 파이오니아, 필립스의 4사에서 거의 나뉘 갖는 세력구도는 크게 변할 것으로 추정한다.

유럽시장에는 2003년 9월부터 투입되어 독일에서의 현

지생산도 시작되었다. 미국, 아시아도 2004년도부터 발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빅터.

당사 DVD레코더의 제1탄이 되는 단체 DVD+RW레코더를 우선 북미에 2004년 초반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일본, 유럽, 아시아로 확대할 계획한다는 산요전기 등, 주요 업체가 속속히 사업참여를 표명하고 있다.

DVD레코더 다양화

DVD레코더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DVD-RAM, DVD-RW, DVD+RW의 각 방식 단체레코더나 일찍부터 상품화되고 있는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내장타입에다 이제까지의 소프트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VHS 복합형도 인기. 게다가 2004년 가을부터는 TV일체형, 홈시어터시스템일체형도 새로이 라인업되었다. 상품의 다양성이 더욱 수요의 신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DVD비디오포맷에 대응한 가전용 AV기기는 DVD플레이어 외에 DVD레코더, DVD플레이어+VHS데크, 카DVD(DVD카네비 포함)플레이어, DVD시어터시스템 등 다양해졌다.

또한, DVD레코더는 세 개의 녹화방식이 존재하고 각각에 HDD내장형, VHS일체형이 개발되어 상품라인업은 느는 한편, 양관점에서는 DVD가 VTR코너를 잠식하고 심지어 수요가 저조한 오디오나 고정계 전화기 매장까지 넓게 배치되었다.

녹화방식은 마쓰시타전기, 도시바 등이 추진한 DVD-RAM방식, 파이오니아, 샤프를 중심으로 단점을 보완한 DVD-RW방식, 소니나 필립스가 제창하는 DVD+RW방식의 3방식이 있는데, 각각 특징이 있다.

이 3방식에는 현재 호환성이 없다. 이 때문에 1대로 DVD-RAM과 RW에 대응하는 멀티드라이브나 DVD-RW와 DVD+RW에 대응한 듀얼기가 상품화되고 있다.

방식별로는 현재 동시녹화재생기능(추적재생)이 있고 저가격화 경쟁에서도 한발 앞선 RAM방식이 약간 우세라고 한다. 단 ①렌탈DVD는 어떤 방식의 녹화기에서도 재생가능 ②프로그램녹화도 DVD-R에 기록하면 일반 DVD 플레이어로 재생가능, 등 VTR 전쟁시와 같은 이용자의 불편은 없기 때문에 '벌써 포맷전쟁은 낡센스'라는 소리도 들린다.

게다가, 상품을 다양화하더라도 HDD내장형, VTR일체형 외, 홈시어터패키지(DVD플레이어+AV앰프+사운드스피커세트)에의 탑재나 TV일체형(텔레비디오의 DVD버전) 등이 상품화되기 시작해 앞으로 점점 'DVD는 녹화기능부가가 당연' 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기록미디어의 복합형으로는 최대 100시간 이상의 녹화가 가능한 대용량HDD를 내장한 타입, 과거의 비디오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VHS일체형,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정지화상이나 단시간의 동화상을 채용할 수 있는 PC카드슬롯탑재형이 상품화됨으로써 인기가 높다.

HDD내장타입의 최근 경향은 대용량화이다. 상품화된 당시에는 20~30GB정도의 HDD를 탑재했지만 이용자로 부터는 '빈 용량을 걱정하지 않고 생각한 만큼 녹화하고 싶다'는 요구가 강해 최근엔 80~120GB타입이 주류가 되었다.

HDD의 대용량화에서 주목된 것이 소니가 2003년 말에 발매한 'PSX' 2기종이다. 상위 기종에는 250GB의 HDD를 탑재한다. DVD-R, DVD-RW, DVD+RW 대응의 DVD레코더기능 외에, 플레이스테이션, PS2의 게임기능도 내장하여 한꺼번에 DVD레코더의 세력 지도를 바꾸게 생겼다.

또, HDD의 대용량화에 따라 디지털하이비전녹화의 요구도 높아진 것 같다. 3대 도시권에서 2003년 12월부터 개시된 지상파 디지털방송으로 인해 디지털TV방송시대가 본격화되어 2004년 봄에는 디지털튜너내장의 HDD·

DVD레코더도 상품화될 전망이므로 그 내장비율은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DVD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홈시어터시스템에서도 DVD녹화기를 채용하는 움직임이다.

제1호기로써 최근 마쓰시타전기가 발매한 SC-HT1000은 DVD레코더와 AV앰프를 일체화한 본체와 5.1채널스피커군을 원패키지한 것이다. 시판 DVD소프트뿐 아니라 자기가 녹화한 마음에 든 스포츠프로그램이나 음악프로그램, 드라마 등도 입체감 있는 서라운드음장으로 즐길 수가 있다.

또한, 종래는 VTR이 그 역할을 다한 TV일체형 복합기에도 DVD레코더의 파장이 밀려오고 있다. 마쓰시타전기는 2003년 가을 업계 최초의 DVD레코더내장 TV를 상품화했다.

비디오내장형 TV시장은 2004년도도 일본국내수요가 약 140만대로 견실한 수요가 예상되고 2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은 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렌탈소프트의 DVD가 전환되고 더구나 다양한 조작면에서의 장점도 DVD가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내장비디오의 종류는 VHS에서 급속히 DVD로 교체되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

AV용 DVD레코더의 방식

녹화방식	주요 특징, 상품화 동향	주요 상품화업체 (OEM제외)	
DVD	RAM방식	DVD포럼이 규격을 정한다. 직경 12cm, 4.7GB의 디스크에 최장 약 6시간 녹화할 수 있다. 녹화하면서 놓친 장면의 추적재생이 가능하다. 10만회의 재기록이 가능.	마쓰시타전기,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삼성전자
	마이너스RW 방식	DVD포럼이 규격을 정한다. 파이오니아가 중심이 되어 상품화를 추진. DVD-RAM과 동일 용량의 4.7GB, 직경 12cm의 광디스크로 최장 약 6시간 녹화가능. 1000회의 재기록이 가능.	파이오니아, 샤프, 미츠비시전기, LG전자
	플러스RW방식	필립스, 소니, 미 HP 등이 포럼의 규격과는 별도로 제창. 직경 12cm의 디스크에서 4.7GB. 특성은 CD-R/RW와 비슷하다. 필립스가 2001년 8월에 상품화하고 구미에서 레코더를 판매.	필립스, 중국/대만업체도 상품화할 계획
	마이너스/플러스RW 듀얼방식	'듀얼기'는 한 개의 드라이브로 플러스/마이너스RW방식 각각의 녹화·재생할 수 있다. PC용의 외부부착드라이브로 듀얼기가 이미 상품화되어 이 기술을 AV용에 응용한다.	소니
	멀티방식	DVD-RAM/RW/RO1 1대의 데크로 녹화·재생할 수 있다. HDD복합기도 있다.	도시바, 일본빅터
DVD/HDD복합기	DVD레코더와 HDD레코더를 복합함으로써 HDD에 일단 녹화하고 마음에 든 프로그램을 DVD에 보존하거나 HDD의 '추적재생'이나 DVD를 재생중에 HDD로 녹화하는 '동시녹화' 등의 사용법이 가능하다.	마쓰시타전기, 도시바, 파이오니아, 샤프, 미쓰비시전기, 삼성전자	